

최대 공기업 한전, 수영대회 개막 당일 '능장 후원' 논란

평창 후원금 800억원에 3.75% 불과한 30억원...대회 준비 마무리 목적 반감

김정희 의원, 정부에 어촌뉴딜300사업 확대

전남도의회는 최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5)이 대표 발의한 '어촌뉴딜300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사업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어촌뉴딜300사업은 2023년까지 5년간 3조원 예산으로 소규모 어항이나 포구 중 개선이 시급한 300곳을 선정해 낙후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지난해 1차 공모결과 전남은 전국 70개소의 37%인 26개소가 선정됐으며, 올해 2차 공모사업 신청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어촌 주민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어촌뉴딜사업이 가능한 대상지가 2,177개소(중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 당일에 후원 협약을 맺기로 해 '능장 후원'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세계수영대회가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국제스포츠경기인 만큼 정부까지 나서 지원을 독려했으나 대회 준비가 마무리 된 후 마지막에 나서지는 모양새다.

9일 광주시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0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대회 조직위원장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경환 한전 사장이 수영대회 후원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김 시장의 일정을 이유로 연기했다.

후원 협약식은 세계수영대회가 개막하는 12일로 연기돼 한전 측은 후원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한전 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 후원을 요청했고, 조직위 실무진도 수차례에 걸쳐 한전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가 광주세계수영대회에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한전은 지원금 규모를 놓고 내부 논의를 거친다는 이유로 광주시와 조직위의 애를 태웠다.

후원금 규모는 한전 본사와 계열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금액이 3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한전 측이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후원한 800억원의 3.75%에 불과하다.

한전의 광주세계수영대회 후원 협약 시기도 문제다. 한전은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개막 5개월 전에 후원 협약을 맺었으나, 광주세계수영대회는 준비가 모두 마무리된 개막 당일해야 체결한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먼저 후원에 나서야 다른 공기업과 민간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물거품이 됐다.

전기요금 인하정책 등에 따른 한전의 적자경영으로 광주수영대회 후원

금을 최소화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회 준비가 마무리된 상황에서의 후원은 목적을 반감시켰다는 지적이

다. 실제로 광주시와 조직위가 대회 준비기간 내내 예산난에 허덕인 탓에 국제행사 때마다 흔했던 도심 내 홍보 플래카드는 물론 꽃탑 등 경관 이미지마저도 보기 드물어 불협 조성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한전이 후원 협약을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다른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대회 준비도 원활했을 것인데 아쉽다"며 "지금이라도 후원 협약을 맺기로 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수영대회 조직위와 후원금 규모를 놓고 협상하다 보니 협약 시기가 지연됐다"며 "개막 당일인 12일 협약식을 체결하고 곧바로 후원금도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동구, 3대 친화도시 현판식 개최

광주 동구가 9일 동구청 1층 현판에서 '3대 친화도시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올해 4월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지난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 후 본격적인 인증작업을 추진해온지 2년만의 결실이다.

이에 따라 동구는 서울 도봉구, 경기 수원시에 이어 전국 세 번째, 광주·전남에서는 최초로 아동·여성·고령 3대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가 됐다.

서석초등학교 어린이 등 지역 내 아동들이 함께한 이날 현판식에서는 아동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친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서구, 폭염대응 살수차 운행 개시

광주 서구가 2019광주수영선수권대회를 맞아 폭염에 대비, 살수차를 본격 운영한다.

서구는 16톤의 대형 살수차 2대를 수영대회기간 기간중 관내 주요도로를 운행하여 주민 및 방문객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구는 또 대회 개막전까지 서구 관내에 27개의 그늘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대회기간 중 지역자율방재단 등 단체와 협력해 주민센터 및 안내소에서 열음생수를 배포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서구는 매년 폭염이 가속화됨에 따라 향후 쿨페이브먼트, 쿨루프, 쿨링포그와 같은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할 방침이다.

남구 대학생 서포터즈 '성공개최 기 딱딱'

광주 남구 관내 대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생 서포터즈'가 2019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기간 각국의 선수와 선수단을 환영·응원하기 위해 각 종목별 경기장을 방문해 현장을 누빈다.

9일 남구에 따르면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기간 광주대와 송원대, 기독교대 대학생 500명으로 구성된 대학생 서포터즈의 응원 스케줄은 타이틀하게 짜인 상태다.

대회 첫날인 12일부터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현장 응원전에 나선다.

우선 이들이 찾은 경기장은 아티스틱 종목이 열리는 염주체육관을 비롯해 다이빙과 경연 종목이 펼쳐지는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수구 종목이 진행되는 남부대 축구장 등 3곳이다.

북구, 함께 쓰고 나누는 공유도시 활성화

광주 북구가 나눌수록 커지는 공유시책 추진을 통해 공유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북구는 "주민과 함께 불품, 공간, 재능 등을 공유해 생활 속 공유·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공유 북구 종합계획'을 적극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유 북구 종합계획'은 공유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고 공유경제 가치를 생활 속에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주민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행복공유 실현'을 목표로 ▲불품공유 운영 · 지원 ▲공공자원 개방공유 ▲재능 · 지식공유 ▲공공인프라 구축 등 4대 분야 19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광산구 "중·장년층 안녕을 지켜드립니다"

9일 광주 광산구가 송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동 통장, 정선간강 기관 실무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장년층 마음건강 지원사업 'We Hello(위 헬로우)'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발대식은 8월, 광산구가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개최한 '2019 생명사랑 월탁토론회'에서 나온 논의 사항을 실천에 옮긴 것.

토론회 참가자들은 당시 안전에 오른 여러 사안 중 중·장년층 대상사업을 우선순위로 실행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광산구의 We Hello사업은 중·장년층에게 작은 일거리 나눔, 생명지킴이 자살 위험군 1:1 매칭, 가족공예·아로마테라피 프로그램 진행 등을 내용으로 한다.

임형택 기자



전남교육청, 다문화학교 '경청올레' 전남도교육청이 현장 의견을 수렴해 효과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행을 위해 다문화 정책 학교 3곳을 찾아 '경청올레'를 실시했다.

이용섭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마련해야"

이용섭 광주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철저한 점검과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9일 간부회의에서 "지난 2007년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으나 재정지원금이 2007년 196억원에서 2018년 639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시내버스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이 지난해 31.2%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도 재정지원금은 증가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광주시 재정

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교통건설국 등 관련 부

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준공영제 운영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가까지 창출과 고용유발 효과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은홍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완도제일교회 공고제2019-1호

완도제일교회 증축공사 입찰공고

완도제일교회 증축공사 입찰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8.
한국기독교장로회 완도제일교회 당회장

- 입찰에불이는사항
가. 공사 명: 완도제일교회 증축공사
나. 위 치: 전남완도군 완도읍 청해전남로23번길9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라. 공사금액: ₩1,068,117,895원(금일삼억육천팔백일십일천칠백구십오원)
리. 공사규모: (639.57㎡(193.47평)), 지상2층 일부, 지상(중)1층(중)중축
※ 전기, 통신, 소방 포함
- 입찰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 또는 도목건축공사업등록업체로 관련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등기부등본상 주된 영업소가 광주·전남지역에소재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교회건립공사를 10억원 이상 시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
라. 회사의 자본금 10억원 이상 및 설립년도가 5년 이상인 업체
마.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소정기간 내에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 낙찰자 결정
가. 본공사의 입찰은 총액내역입찰이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해야 한다
나. 낙찰의 방법은 현장설명회 참가후,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로 총공사비 이하로써 본 교회에서 정한 낙찰한도가 가장 낮아져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입찰 결과,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공내역서: 게제 생략(현장설명회시 비치)
- 현장설명: 2019. 7. 23.(화) 14:00시 (완도제일교회 로망카페)
- 입찰등록서류 제출: 2019. 7. 30.(화) 18:00까지(완도제일교회 사무실)
- 입찰일시 및 장소: 2019. 8. 6.(화) 14:00시(완도제일교회 로망카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제일교회 건축위원장(010-3645-2923), 총무(010-3601-949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소득증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외부 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Ом부즈만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탁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